

구리소방서, 추석 명절 대비 전통시장 3일간 소방훈련 마무리

✎ 윤덕신 기자 | ㉠ 승인 2023.09.14



구리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위해 구리전통시장을 방문해 대형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했다.

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열린 소방훈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음식 준비 등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제 화재 발생을 가정한 가상화점을 지정 신속한 화재진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훈련으로 실시했다.

이번 훈련은 대형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한 긴급 대응능력 강화와 사전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.

훈련 주요 내용은 ▶사전 도상훈련 ▶소방차량 배치 및 운영·통제 훈련 ▶특수차량(굴절차) 차량 부서 훈련 및 현장적응 훈련 ▶화재진압훈련 ▶관계자 화재예방 안전교육 등이다.

김윤호 구리소방서장은 "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 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"며 "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"고 전했다.

구리=윤덕신 기자 dsyun@kihoilbo.co.kr



윤덕신 기자 dsyun@kihoilbo.co.kr